

‘또 다른 올림픽’ 도쿄 패럴림픽 24일 개막

# 전북 소속 선수단 4명 출전

육상 전민재, 사이클 이도연  
탁구 이근우·백영복 등 3종목

2020 도쿄패럴림픽대회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 간 열린다.

181개국 22개 종목 4,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소속 선수단은 육상 전민재, 사이클 이도연, 탁구 이근우, 백영복 등 3종목에 4명이 출전한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서 주최하고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 통합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 참가장에는 휠체어 및 기타장애(뇌성 척수, 시각장애, 지적장애).

이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패럴림픽은 올림픽 폐막 직후 같은 도시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6 리우 패럴림픽은 159개 나라에서 참가한 4,328명의 선수가 22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전민재 이도연 이근우 백영복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IPC)가 제시하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선수들의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격을 갖춘 선수들의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패럴림픽의 역사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영국 스톡 맨더빌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루드윅 구트만 경이 척추 손상을 입은 2차 세계 대전 참전 용사들의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궁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1962년 국제대회로 격상됐고

경기가 열리고 있다.

패럴림픽은 원래 재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엘리트 스포츠로 발돋움했다.

현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휠체어가 필요한 선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이제 패럴림픽은 ‘또 다른 올림픽’으로 불리고 있다.

패럴림픽대회는 인간의 평등을 확인하는 대회이며, 인간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감동의 대축제다. /정은성 기자

## ‘태권도, 스포츠 넘어 문화 콘텐츠로’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비대면 경연으로 진행  
‘킹 오브 더 태권 댄스’ 등 2개 부문… 내달 8일까지 신청 접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비대면 경연 방식인 2021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이하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9월 8일까지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3회째를 맞는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은 총 상금은 230만원으로 예선은 9월 11일, 본선은 10월 9일과 10일 진행된다.

K-POP을 접목한 창작 태권체조 경연인 ‘킹 오브 더 태권 댄스’와 단체 배틀 형태로 장애물 격파와 개인 및 팀워크 기량을 겨루는 ‘얼반(urban) 태권 챔스’ 경연 등 2개 부문에서 초·중등부와 고등·대학·일반부로 경연이 펼쳐진다.

각 경연 부문 1위 팀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본선 경연은 태권도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고, 대회 영상은 KBS 1TV에서 녹화방송 예정이다.

예선은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영상을 활용해 심사하고, 본선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본선 경연 시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연 참가자와 지도자, 심사위원 등

대회 관계자만 입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관계자는 발열 측정 후 입장이 가능하고 T1경기장 내부는 대회 전, 중, 후 전체 방역을 실시한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창작 태권체조와 팀 대항 태권도 경연을 통해 재미있는 태권도, 화려한 태권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참가 접수와 안내는 태권도 문화 페스티벌 웹사이트(<http://www.2021tdcf.co.kr>)를 참고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정읍시 국내 배드민턴 최강자 ‘옥석 가리기’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  
국가대표 선발대회 개최  
내년 대표 선수 40명 뽑아



국내 최정상급의 배드민턴 선수를 가리는 2022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17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정읍시청 제공)

국내 최정상급의 배드민턴 선수를 가리는 2022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17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정읍시배드민턴협회와 전라북도배드민턴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전국의 배드민턴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에는 국가대표 선발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84명의 국내 최정상급 배드민턴 선수들이 참가한다.

단식 경기는 조별 풀리그 전으로 펼쳐지고, 복식 경기는 파트너 선수와 상대 선수가 무작위로 선정되는 평가전으로 열린다. 열띤 경쟁을 통해 2022년 대한민국을 대표할 선수 40명을 선발하게 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측정과 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매일 경기장 내부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장에 입장하는 모든 선수단과 관계자 전원에는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대회기간 중에도 일일 동선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대회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이번 대회의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 ‘오마이플레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대회와 9월 말 예정인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까지 수준 높은 대회의 연이은 개최를 통해 배드민턴 최적지로서 정읍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 참체한 스포츠 영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한국 양궁, 국제무대 겨냥 20일 입촌

진천선수촌에… 도쿄올림픽 이후 첫 공식 훈련 돌입  
안산·김제덕 등 내달 美 양크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목에 걸며 올림픽 효자종목 역할을 톡톡히 한 한국 양궁이 도쿄의 영광을 뒤로 하고 다시 활을 잡는다.

17일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남녀 양궁대표팀(리커브)이 다음달 20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양크턴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오는 20일 진천선수촌에 입촌 훈련에 돌입한다.

도쿄올림픽 이후 첫 공식 훈련이다. 세계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열린다.

한국은 혼성 단체전이 추가되면서 금메달이 총 5개로 늘어난 이번 올림픽에서 남녀 단체전과 여자 개인전, 혼성 단체전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1984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서하수의 첫 금메달을 시작으로 양궁이 올림픽에서 수확한 총 금메달 수는 27개 등, 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쇼트트랙(24개)을 제치고 가장 많은 금메달을 쏟아냈다.

여자부의 안산(20·광주여대)은 한국 하계올림픽 최초로 3관왕의 자리에 올랐고, 막내 김제덕(17·경북일고)은 2관왕을 차지했다. 김제덕은 역대 한국 올림픽 남자선수 최연소 금메

달리스트다.

남자부의 오진혁(40·현대제철), 김우진(29·청주시청), 김제덕, 여자부의 강재영(25·현대모비스), 장민희(22·인천대), 안산은 올림픽 이후 협회 행사와 개인 일정 등을 소화했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고 일본에 출국했던 김제덕은 자가격리도 모두 마쳤다.

선수단은 다음달 중순 출국할 예정이다.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식으로 치르는 컴파운드 종목의 선수들도 원정같이 오른다.

최용희(37), 김종호(27·이상 현대제철), 양재원(24·울산남구청·이상 남자부), 소채원(24), 김윤희(27), 송윤수(26·이상 현대모비스·이상 여자부)가 출전한다.

컴파운드는 기계식 활이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국제대회가 열리지 못해 사실상 2년 만에 갖는 국제무대 실전이다. /뉴시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